

당신들 마음 속에 숨어 있는 아름다운 꿈 그 것이 연극의 시작이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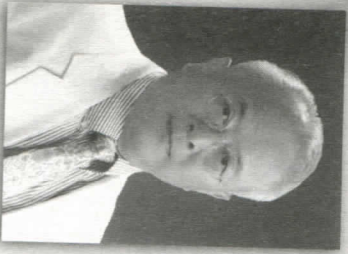


오메가 햄릿

저자 김승일

영진

친구야, 기쁘다!



권성덕

배우
전국립극단단장 겸
예술감독

동갑에 동창이니 평소대로 격식 빼고 말하겠다. 희곡 출간을 진심으로 축하한다. 잠시 뒤 돌아보니 우리가 20대 초에 대학에서 만났는데 어언 45년이 지나 인생 황혼에 접어들었구나. 나는 가끔 이 나이가 되도록 우리가 뭘 했나? 아까운 세월 다 보내고 빈 껌데기만 남아 떠도는 것이 아닌가 싶어 쓸쓸했는데, 친구의 희곡 출간 소식을 듣고 너무도 반기웠다. 세월이 헛되지 않고, 전공이 헛되지 않았는지 얼마나 반기웠겠느냐? 1200여 명이 1959년에 대학에서 만나서 이제는 부신에 그 대 한 사람, 서울에 나 한 사람, 둘 뿐이구나. 다른 친구들은 죽거나 중도 하차 하고 말았으니...

나는 그동안 현실이 어려움을 때는 연극·영화관에 간 것을 후회도 했지만 요즘은 내가 참으로 선택을 잘 했구나 하는 생각을 한다. 왜냐하면 연극이, 희곡이 나에게 세상을 보는 눈을 활짝 열어주었기 때문이다.

내가 연극·영화관에 가지 않았더라면 어찌 유진·오닐이 본 세계를 경험할 수 있었겠으며, 안톤·체흐, 손톤·와일더, 아서·밀러, 테네시·윌리엄스, 뒤렌마트, 모리엘, 괴테, 쉴러, 셰익스피어가 본 세계를 한 구석이나마 섭렵할 수 있었겠느냐? 내게는 연극이 세계로 열린진 대문이요, 망원경이요, 현미경이었다. 내가 희곡을 읽지 않았다면 세계(동양, 서양)를, 세상을, 사람을 조금이나마 알 수 있었을까를 생각하면서, 벌여놓은 것 없어도 앞으로 벌여들일 회망이 없어도 그저 감사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고 있다.

금년 들어 나는 우리 나이에 50을 빼면 18살 밖에 안되니 새파란 청춘이 아닌가? 이제부터 인생을 또 한번 시작해보자고 삼들이 같은 생각을 해본다. 승일이 너도 그랬으면 좋겠다. 그래서 김승일이 보는 셰익스피어 못지 않은 인생의 해부도, 세상의 해부도가 계속 작품으로 나왔으면 좋겠다.

2007년 새해 들어 정말 반갑고 기분 좋은 커다란 낭보다. 진심으로 희곡출간을 축하하면서 계속 건투하기를 빈다.

2007. 1. 11

차례

5

오메가 햄릿

75

의원놈 도둑님

127

졸(卒)들의 탈출

오메가 햄릿

나오는 인물

- 최 사장
- 손씨 (최사장 부인)
- 용국 (최 사장의 아들 - 꿈추더)
- 연출
- 오필리아
- 왕
- 왕비
- 유령
- 폴로니아스
- 레이티즈
- 무대 감독
- 손이
- 광대들

김승일 희곡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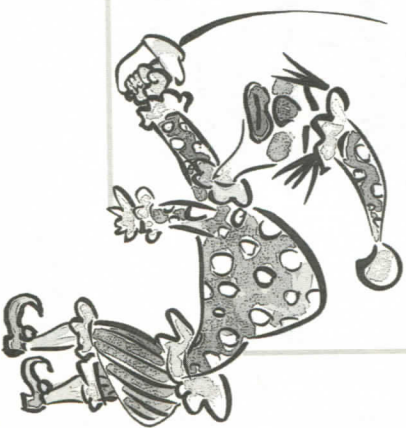
오메가 햄릿

발행일 2007년 2월 10일
지은이 김승일
편집인 김대연
펴낸곳 영진인쇄출판
부산광역시 동래구 사직3동 115-20
Tel. (051) 501-7613 Fax. (051) 505-3648
E-mail : yjprinte@hanmail.net

출판등록 제02-06-165호

값 10,000원

* 이 책은 2008년도 부산광역시 문예진흥기금의 일부를 지원받아 발간되었습니다.



그 맑은 눈동자에 썩은 씨앗을 심지마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
 앵무새 기르는 놚들도 같이 불러봐 이 노래를
 같이 손잡고 하늘의 소리처럼 바람을 일으키며
 '이 정성 다해서 통일 통일을 이루자
 이 겨레 살리는 통일 이 나라 살리는 통일'
 혼을 담아 노래해봐 진심으로 노래해봐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다지는 이런 노래는 사라지게
 팔을 끼고 춤추며 앵무새를 기르던 너희들이
 '통일이여 어서 오라 통일이여 오라
 우리의 소원은 통일.....' ♪

(음악은 계속되고 무대인사 한다)

참기쁘다!

김승일 선생님의 글이 이 세상에 나온단다.

오랜시간 서로 도움 주고받으며 존경하며 지내는 선생님.
 작년 우리 극단이 전국연극제 부산대표로 참가 했을때 선생
 님께서 오셔서 잠시 지도해 주신 적이 있다. 덕분에 우리 극
 단은 전국연극제에서 '금상'이라는 큰 상을 수상하는 영광
 을 안기도 하였다.



홍성모

극단 '바다와 문화'를
 사랑하는 사람들' 대표

선생님의 희곡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내가 제일 좋
 아하는 것은 「의원님 도둑님」이라는 제목의 작품이다. 이 작
 품은 가족간의 사랑과 연극인들의 아픔, 즐거움 등 진솔한
 사람 사는 이야기이다. 한 작품에 희노애락을 동시에 가지고
 있어, 관객들에게 감동과 웃음을 동시에 느끼게 할 수 있는
 보기 드문 수작이다. 그래서 나는 매년 이 작품을 우리 극단
 의 고정 레파토리로 공연한다. 2005년도 부터는 이 작품을
 원작에 더 가깝게 뮤지컬로 바꾸어 공연하고 있다. 개인적으로 이 작품이 「사랑은 비를
 타고」라는 작품을 능가한다고 자부한다.

또 함께 작업했던 「오메가 헬릿」도 언제나 다시하고 싶은 좋은 작품이다. 이번에 새롭
 게 발표하신 「졸들의 탈출」 또한 기대되는 작품이다. 제목에서 느껴지듯 많은 변화와
 변천이 있을것이라 여겨진다.

아무튼 기쁘다.

나는 선생님이 지금처럼 건강하시고, 지금보다 더 활발한 활동으로 좋은 글들을 많이
 발표하시어서 우리 부산연극 발전을 위해, 우리들의 '굿판'에 항상 도움과 발전을 주시
 길 진심으로 바란다.

우리 극단 '바다와 문화'를 사랑하는 사람들' 단원과 함께 마음 깊이 감사드립니다.

극단 '바다와 문화'를 사랑하는 사람들'
 대표 홍성모

고향에 대한 그리움
그런데도 그리워하는 마음
그런데도 그리워하는 마음
그런데도 그리워하는 마음
그런데도 그리워하는 마음
그런데도 그리워하는 마음

작은 화분에서라도
그런데도 그리워하는 마음
그런데도 그리워하는 마음
그런데도 그리워하는 마음
그런데도 그리워하는 마음
그런데도 그리워하는 마음

부담없이 사는 꿈
그런데도 그리워하는 마음
그런데도 그리워하는 마음
그런데도 그리워하는 마음
그런데도 그리워하는 마음
그런데도 그리워하는 마음

그런데도 그리워하는 마음
그런데도 그리워하는 마음
그런데도 그리워하는 마음
그런데도 그리워하는 마음
그런데도 그리워하는 마음
그런데도 그리워하는 마음

그런데도 그리워하는 마음
그런데도 그리워하는 마음
그런데도 그리워하는 마음
그런데도 그리워하는 마음
그런데도 그리워하는 마음
그런데도 그리워하는 마음

그런데도 그리워하는 마음
그런데도 그리워하는 마음
그런데도 그리워하는 마음
그런데도 그리워하는 마음
그런데도 그리워하는 마음
그런데도 그리워하는 마음